01 목회권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벽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예절을 지켜 단정한 복장에 유의해 주시 기 바라며, 절전(불필요한 냉방 등)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코로나 정상화

코로나 19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좌석에 붙여진 스티커를 확인하고 앉아주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03 안내사항

주일오후예배, 금요기도회, 새가족교육, 구역예배, 피택자교육, 각 부서 월례회 등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인해 당분간 주일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04 차별금지법

일반인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5 예배에티켓

- ① 예배 시작 10분 전 도착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 ② 예배 자리는 앞자리부터 예배당 앞쪽 중앙 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것이 멋진 섬김입니다.
- ③ 휴대전화는 꺼 주세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는 잠시 꺼 두세요.
- ④ 예배당으로 음식물 반입 NO! 음식물은 로비나 카페에서 모두 드시고 입장해주세요
- ⑤ 복장은 단정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금요기도회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 건축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한경민, 윤정민, 강신모

반주자 하은미, 박은영, 김범준, 김슬기

7월 19일 7권 29호

| * 여 는 찬 양 | 주 기 도 문 | | | | |
|------------------|---------|-----------|---------|--|--|
| * 예 배 선 포 | | 인 도 자 | | | |
| * 찬 송 | | 9장 | | | |
| * 공동기도문 | | 다 같 이 | | | |
| * 신 앙 고 백 | | 사 도 신 경 | | | |
| 찬 송 | | 312 장 | | | |
| 기 도 | 장재욱 집사 | 황인순 권사 | 강예식 집사 | | |
| 교 회 소 식 새가족환영 | | 인 도 자 | | | |
| 오늘의말씀 | | 삼상 7:5-9 | | | |
| 찬 양 | 은혜찬양대 | 호산나찬양대 | 할렐루야찬양대 | | |
| 오늘의말씀 | "교회는 | - 기도의 엔진으 | 로 간다" | | |
| | | 윤호식 목사 | | | |
| 봉 헌 | | 363 장 | | | |
| *친 교 | 다 같 이 | | | | |
| * 송 영 | | 우물가의 여인처럼 | | | |
| *축 도 | | 윤호식 목사 | | |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2시 오후7시

| | 찬 |
|--|-------|
| | 신 앙 고 |
| | 성 경 동 |
| | 설 |
| | 찬 |
| | 축 |

| | | | • | - |
|---------|----------------|-----|-----|----|
| 찬 양 | | 찬 | 양 | 팀 |
| 신 앙 고 백 | | 사 도 | . 신 | 경 |
| 성경봉독 | ···롬2:17-24··· | 인 . | 도 | 자 |
| 설 교 | 너 자신을 알라 | 윤호4 | 닉 도 | 갂 |
| 찬 송 | ·····261장····· | 다 | 같 | 0 |
| 축 도 | | 윤호 | 닉 도 | 갂사 |

| 7/20(월) | 사8:1-8 |
|---------|-----------|
| 7/21(화) | 사8:9-22 |
| 7/22(수) | 사9:1-7 |
| 7/23(목) | 사9:8-10:4 |
| 7/24(금) | 사10:5-19 |
| 7/25(토) | 사10:20-34 |

| 주일오: | 후1:30 | 비전센터5층 |
|------|-------|--------|
| 찬양 | | 찬양팀 |
| 기도 | | 변승 |
| 본문 | | 요5:1-9 |
| 설교 | | 박순영목사 |
| 축도 | | 박순영목사 |

| - 1 | | | |
|-----|--|--|--|
|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대표기도 | 1부 | 2부 | 3부 |
|-------|-----|-----|-----|
| 7/26 | 조근석 | 권경자 | 정명희 |
| 8/2 | 송길선 | 최경란 | 김삼연 |
| 8/9 | 한옥희 | 엄영애 | 김학수 |



■ 지 난 주 등 록

| ■ 2020년도 등록자 | | | | | | | | |
|--------------|-----|-----|-----|-----|-----|--|--|--|
| 신주희 | 박선민 | 이미정 | 김지영 | 김일곤 | 장상민 | | | |
| 최병주 | 윤미란 | 김완수 | 이향호 | 변춘식 | 조하나 | | | |
| 심주원 | 진미숙 | 손미정 | 김성호 | 홍성인 | | | | |
| 나기해 | 이워규 | 신으수 | 이용찬 | 정히소 | | | | |

제 목: "주일마다 꼭 교회에 가야합니까?"(히10:19-25)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회막으로, 성막으로, 성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십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이 경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이면 불이익을 당하고 평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감우에 간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하려 모이기에 어려운 시기였는데 더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형2:36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예 배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히10:19"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합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 사건, 예수의 피를 합입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탄압과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해서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모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히10:21-22"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 을 받아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예 배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 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히10:23-24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기에 소망이 있습 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일 하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 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 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은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 고 서로 선행을 격려합니다. 좋은 교인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까? 모이는 것이 편합니 까?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모이면 불편합니다. 모이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발도 신어야 하고 머리도 단장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합니다. 시간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모이면 나 혼자만이 아니므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모이 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믿음의 모임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주 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 배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 니다.

■ 십일조

강예식 김은지 김정인 문성우 박선희 박순영 박정미 변승지 손막동 오현애 유흥재 이현경 이혜숙 장중현 정기숙 조옥순 조웅순 채석진 무 명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인환 권경자 김미성 김영춘 김유림 남기해 문성우 문지연 박인순 엄만유 오현애 이기세 이복순 이원규 이응창 이일심 이향호 장중현 정선영8 정순희 채석진 하상호 하은미 한상준 한옥희

■ 선교헌금

강예식 김미성 김은지 김학수 윤선례 윤호식 장중현 정명희 정선영® 조미애 조옥순 황인순

■ 주정헌금

김귀근 김지영 박인순 변성진 심은숙 윤정민 이원규 이향실 이혜숙 장재욱 정영규 제언회 조근석 최경란 최영식 무 명

■ 일천번제

김정혜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물질에 축복을 주시어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게 하읍소서. 이사문제를 주님의 인도대로 따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숙면하게 하옵소서, 건강 주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온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임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시의 결혼을 인도하옵소서, 직장문제와 대인관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7월 한 달도 건강으로 이 은혜 속에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7월 한 달도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석이 학업과 남편의 신앙생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사위의 전시회와 아들의 결혼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찬이가 미열이 오르지 않고 잘 먹고 잘 늘게 하옵소서, 참 행복과 기쁨과 즐 거운 인생을 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램에도 양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램에도 양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보

| | 축구 | 탁 구 | 바둑 | 족 구 | 등 산 | 볼 링 | 실버합창 |
|----|-----|-----|-----|-----|-----|-----|------|
| 부장 | 장재욱 | 김교민 | 정성환 | 석용문 | 김학수 | 홍순자 | 채석진 |
| 총무 | 김병조 | 박인순 | 이종구 | 이승수 | 한상준 | 한경민 | 장복실 |